

북스

Books

굴곡된 인생, 철학으로 노래하다

고마워요, 철학부인
알렉산드르 졸리앙 지음



5세기 로마 출신의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박해다식과 유능함으로 왕의 고문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의 능력을 질시한 이들에게 기회주의자로 몰려 반역죄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스위스 출신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알렉산드르 졸리앙의 '고마워요, 철학부인'은 보에티우스의 그것과 비슷하게 자신의 철학 여정을 편지글 형식에 담은 책이다.

저자는 철학 부인을 비롯해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등 자신을 변화시켜준 철학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등의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보에티우스 덕분에 자신에게 낙인찍힌 프리프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숨겨진 본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에피쿠로스의 "인생은 그러한 '유보' 때문에 점점 사라진다"는 말로써 현재의 기쁨마저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음을,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홀로코스트로 숨진 유대인이면서도 "그때도 기뻐하며 살아가길 장소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감내했던 에티 할레슈에게서 '인생은 극복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성찰했다고 밝힌다.

또한 저자는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의 달콤함보다는 시련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에 마음을 열고 삶이 주는 무상의 선물들을 마음껏 즐기려 한다"고, "과거의 무게, 죄의식, 두려움, 일상의 속박 때문에 자유롭게 있을 수 없었던 때가 많았다"고 말한다.

이제는 저자가 텃밭이 목에 감겨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갖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난관이 그를 철학으로 이끌었다는 얘기.



저자는 '철학 부인'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킨 철학자들의 편지를 통해 성숙되어가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책은 우리에게 극복하려 발버둥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를 얻은 한 인간의 소박하고 뜨거운 고백으로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그를 구축한 철학자들의 편지를 통해 철학이 난해하고 근엄한 현학의 세계가 아니라 내 삶을 보듬는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해준다.

〈푸른숲·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6·25 전쟁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 피해자이면서도 지금까지 가려졌던 '전쟁미망인'들의 삶을 구술을 통해 복원한 역사서이다.



에렌 동산을 떠나며=아름답고 깔끔한 문체를 자랑하는 중견 작가 이병천씨의 장편소설. 2007년 새진북신문에 연재한 것을 엮은 것이다.



여자 그림 위조자 1, 2=화가이자 소설가인 베아테 위기외르가 쓴 소설로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여성 화가로 알려진 소포니스타 앙구이솔라를 소재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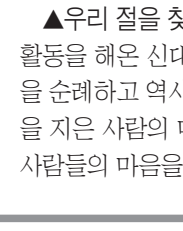
순이='절반의 실패' 혼자 눈뜨는 아침' 등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을 주로 써온 이경자씨의 새 장편소설. 6·25 전쟁 직후 수복된 양양에서 자란 여섯 살 소녀 '순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른 살에 처음 시작하는 영화 만들기=서른 살에 처음 시리즈 3권. 한 번쯤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시네킷 세대에게 시나리오 쓰기부터 촬영, 편집, 포스터 제작,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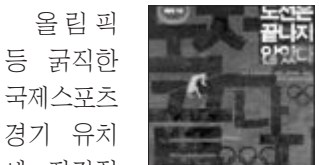


생각공장 공상장=브랜드 전문가 노장오씨와 작곡선사 최창익의 발상을 위한 5가지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발상의 전환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일깨워준다.



우리 절을 찾아서=불교문화와 전통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선대현씨가 사천왕사 등 천년고찰을 비롯해 사찰 48곳을 순례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88 서울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외교 뒷 이야기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경기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최만립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88서울올림픽이 1979년 9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치 계획 승인으로 시작된 사실 등 86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의 유치 성공 등에 얽힌 숨은 비화를 소개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함께 두 번의 실패로 이어진 원인과 과정, 향후 유치를 위한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생각의나무·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용품이 우리를... 폴 D. 블랙크 지음



대개 의학과 관련된 문제들과는 달리 산업재해나 산업질병, 환경오염 사건은 가해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폴 D. 블랙크는 '생활용품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나'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의 유해성과 미흡한 대처를 경고한다.

부엌 서랍 안에 있는 접착제, 세탁실 선반에 놓인 표백제, 옷장에 보관된 레이온 스카프, 문에 달린 낫쇠 손잡이, 베란다 난간지 등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생활용품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표백제·스카프 속 유해물질이 건강 위협한다

중 상당수에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 특히 벤젠 같은 휘발물질은 발암물질이라는 증거가 잇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저자는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와 영화와 노래 등 대중문화, 그리고 산업 부문과 정부 대응까지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폭넓게 사유하면서 생활용품과 독성물질의 문제를 파고든다.

생수와 생수병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식수가 사고파는 상품이 되면서 생기는 갖가지 기본권 문제는 차치한다 해도, 페트병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며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병들고 있는지, 그리고 무수히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조각들이 해양을 오염시키는지를 고려한다면 이 역시 쉽게 묻어둘 수 없는 문제다.

접착제나 레이온 천, 낫쇠 손잡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기술 발전이라는 공통된 연결고리가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되풀이 된다.

또한 저자는 생활용품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노동 운동의 역사에도 시선을 던진다.

예를들면 주로 끈끈한 코팅제에 포함되는 산업용 용매 디메틸포름아미드(DMF)는 간 손상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작업장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화학적인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에코리브르·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FAX)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펜션건물(투자,지역,인대)
대지 300평 건물 140평
투자용 펜션 용지
150~300평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나대지
식당, 전원주택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식당, 사옥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근린상가, ▶근린시설, ▶상가주택, ▶월세/빌라/다세대/오피스텔